



## 인천 군수·구청장, '내항 항만 재개발' 한 목소리로 촉구

### 지체할 수 없는 개발, 정부 향해 강조 김정헌 중구청장 제안, 공동 건의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등 인천지역 군수·구청장이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 사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 이제는 내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은 지난 12일 연수구청에서 열린 ‘6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발표해 개발에 대한 염원이 담긴 한목소리를 냈다.

김정헌 중구청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건의문은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 사업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항만 관련 권한을 인천시에 환원하는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로 확인됐다.

지난 2007년 인천시민의 국회청원을 계



김정헌 중구청장이 내항 재개발 조속 추진 공동 건의문을 내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구

기로 시작된 ‘내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15년 1·8부두 항만 재개발을 결정한 후, 2018년 내항 전체에 대한 ‘항만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단계별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시 역시 민선 8기 공약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시 주도의 내

항 항만 재개발과 연계해 원도심 정주 환경 개선, 교통관광 인프라 구축,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항 재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더불어, 항만 개발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이 인천

시와 10개 군·구의 공통된 입장이다.

실제 건의문에는 “이제라도 인천시민과 약속한 내항 재개발, 1·8부두 개방 등 항만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한다”며 “더 이상 약속을 미루지 말고 내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공동 건의문을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항만 재개발 사업은 내항과 연계한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부활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원팀이 되겠다. 정부 차원에서도 시민들의 오랜 염원에 적극적으로 부응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등 10개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이형숙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했다.

문미순 기자 0405mms@naver.com

## 서구, 도금·인쇄회로 업종 특별점검 실시

인천시 서구가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오염 부하율 저감,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5월까지 도금업체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환경법 위반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19건,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5건이다.

주요 사례로 A 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오염물질인 시안이 13.65mg/l(기준, 1mg/l)로 배출해 배출허용기준을 1000% 이상 초과한 배출 행위를 적발하여 서구는 조업정지 5일을 처분했다.

B 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 98.70mg/l(기준, 60mg/l)로 배출해 배출허용기준을 2년 내 3회 초과한 행위로 조업정지 5일을 처분받았다.

C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사업장으로 의무사항인 대기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구는 이번에 적발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조업정지,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최재민 기자 cjm9907@naver.com

## 세계 최고 ‘해로우 스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설립 추진

### 영국 명문 학교와 양해각서 체결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12일 홍콩에서 영국 최고 명문 학교인 해로우 스쿨 아시아 학교 설립 인허가 법인인 ‘AISL Harrow International School’의 에릭 르영 대표와 Harrow School의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을 위한 양기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해각서의 골자는 △IFEZ와 영국 Harrow School 간 상호 이해와 협력 도모 △IFEZ 내 이상적 교육 환경 조성국 제학교 설립을 위한 논의 및 지원 등이다.

‘Harrow School’은 1572년 설립되어 약 450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가 깊은 학교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백 IFEZ 정책특보, 로자나 왕 AISL 회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에릭 르영 해로우 스쿨 대표, 김종환 IFEZ 투자유치본부장, 대니얼 추 설립자. /인천경제청

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및 시인이자 정치인 고든 바이런, 인도 수상 네루, 요르단 3대 국왕 후세인 1세,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의 졸업생을 배출한 영국을 대표하는 명문학교로 유명하다.

AISL과 Harrow School은 1998년 방콕을 시작으로 북경, 홍콩, 상해, 선전 등 아시아 지역에 12개의 분교를 운영중이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IFEZ 내에 한국 최초로 Harrow School을 설립하기로 했다.

김진용 청장은 “2018년 런던 Harrow School을 방문하여 학교 유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그간 중단되었던 Harrow School을 드디어 유치하게 되었다”며 “해로우 스쿨 본교는 boy 스쿨로 운영되는 전통을 갖고 있으나, IFEZ 내에서는 남녀공학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인천시가 동북아 글로벌 중심도시로 서는데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 cgy6148@naver.com

## 인천관광공사, 아이 많이 낳으면 ‘인사·근평’ 반영된다

### 인사가점, 승진 등 저출산 극복 앞장

인천관광공사가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다자녀 직원의 특별승진 정책을 내놓았다. 공사는 최근 2023년도 인사운영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방침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5급 이하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인사마일리지 가점을 부여하고,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승진으로 우대할 계

획이다. 특별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이 밖에도 공사는 조직 및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일 부서 내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기술직군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의 동기유발 및 적극적 업무처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직원의 능력과 동기를 제고하여 성과를 향상시키겠다는 전

략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올해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이번 인사계획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 cgy6148@naver.com